

# 고흥군, 토지 지목 현실화 군민 재산권 강화 나섰다

###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 대상 300필지 항공사진 분석 5월까지 지목변경 안내 토지 소유자 안내문 발송

고흥군이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돼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 약 300필지를 사전조사해 지난 4월까지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는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5월말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 현행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처리 내용을 알려 윈스톱 행정을 추진해 더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고

흥군은 기대하고 있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61-830-5651)으로 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안내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빗물받이 막힘’ 신고 기간 운영 광양시, 도시침수 예방

광양시는 10월31일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 등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모아서 하수관으로 유출하는 시설이다. 빗물받이 내부에 토사, 낙엽 등 각종 쓰레기가 쌓이면 빗물 역류로 침수가 발생하고 빗물받이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침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킨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안전신고 메뉴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다음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제1회 ‘광양시 청소년상’ 시상 광양시, 5개 부문

광양시는 지난 18일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에서 청소년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청소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시 청소년상’은 지역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 상을 정립하고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시상하기 위해 지난 2월 청소년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청소년상은 초·중·고등학교와 읍면동사무소, 청소년단체에서 5개 부문, 8명이 추천됐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봉사 △장애인 △예체능 △과학기술 △문예 부문에 1개 단체와 4명의 청소년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제1회 청소년상은 △봉사 부문, 청소년자원봉사단 UNI △장애 부문, 김주환(성황초) △예체능 부문, 이시원(광양제철초) △과학기술 부문, 김동윤(전남과학고) △문예 부문, 홍은서(진월초) 학생이 수상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구례군, 6월30일까지

구례군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란 청년들에게 공연관람, 도서구입, 체육시설 등 문화복지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2년 5월13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96년~2005년도 출생자이다.

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자는 문화복지비를 제외한 12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3월 진행된 대상자 모집에는 618명이 신청하여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에 군은 6월30일까지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신청은 농협 카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지원되는 문화복지비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전남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구례=김상현 기자

### 견고 싶은 거리 만들기 순천시 왕조1동 우명마을

순천시 왕조1동(동장 정학규)이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조례동 우명마을에 벽화를 조성했다.

21일 순천시 왕조1동에 따르면 이번 ‘우명마을 안길 견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 거주해 온 주민들의 환경정비에 대한 수요로 기획됐다.

오래된 주택가에 화려한 꽃과 바닷속 그림으로 담벼락을 장식하여 골목이 깔끔하고 환해졌다.

이 사업으로 우명마을 골목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오갈 수 있는 등하굣길이 됐다. 또한 마을 곳곳의 담벼락은 오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붙드는 포토 스폿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학규 왕조1동장은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며 “주민들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 살피며 더욱 살기 좋고 안전한 왕조1동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주민들이 순천시 조례동 우명마을 일원에 조성된 벽화 길을 견고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광양시,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꾸준히 증가

### 안심상속 윈스톱서비스 등

광양시는 올해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사용자가 5월 기준 382건·4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수수료 없이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본인 명의로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현재는 사망신고 시에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윈스톱서비스’와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로 토지를 찾고자 하는 자는 국토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조상의 토지를 찾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했을 때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조상땅 찾기, 개인파산용 재산조회, 공직자 재산조회 등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의 활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구례군, 밀 구입 차액 지원

구례군은 오는 29일까지 ‘구례 밀 구입 차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구례 밀 구입 차액 지원사업’이란 구례군 관내 음식점 및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밀가루를 구례 밀가루로 대체했을 때 발생하는 원료매입비의 증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구례군 우리 밀 가공공장은 기존 소규모 제분 시설을 현대화·전문화된 시설로 탈바꿈하고 6월부터 고품질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수입 밀을 구례 밀로 대체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구례 밀 구입 차액 지원사업을 통해 구례 밀의 가격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구례 밀 구입 차액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현재 사업장 및 주소지가 구례군이면서 광의면 소재 구례 밀 영농조합법인(광의면 소재 우리 밀 가공공장)에서 구례 밀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업소이다.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 구례 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밀=구례 밀’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순천시, 인공지능 시대 생성형 AI 만나다 특강

### 7가지 디지털 개념 설명

순천시는 지난 17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인공지능의 시대, 생성형 AI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김묘은 디지털 리터러시협회 대표 초청 강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김묘은 대표는 음악, 미술, 건축, 책 출판,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7가지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AI를 활용해 단 10분 만에 제작한 순천을 주제로 한 노래를 직접 들려주며 많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가 지난 17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인공지능의 시대 생성형 AI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강 외에도 AI 활용부터 책을 기획하는 디지털 에세이 아카데미와 이미지 생성형 AI 활용을 배우는 디자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과정 학습자

를 모집 중이다. 강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평생교육포털의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구글폼, 모아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QR code and text: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